

턱교정수술에서의 Nam's method

서울중앙병원 치과

김 재 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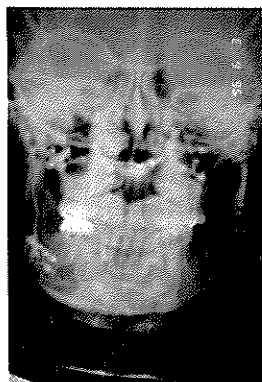
하악과두method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. 단부에 종양등의 질병때문에 안면비대칭의 턱변형이 있는 경우, 먼저 하악과두에 대한 수술을 하고 차후에 턱교정수술을 하거나,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. 즉 하악과두에 Osteochroma가 발생하여 안면비대칭이 있는 경우, 과두절제를 하고난 2-3개월후 안면비대칭에 대한 수술을 할 수 있으나, 과두부위가 scar tissue로 차지되므로 종종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. 이런 경우 종양의 크기가 커서 preauricular approach만으로 힘들고 정확한 vertical

osteotomy를 위하여 Nam's method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. 단 이 방법으로 우려되는 것은 혈류차단에 의한 골편의 괴사이다.

본 증례는 좌측하악과두부에 생긴 osteochroma와 안면비대칭으로 종양의 크기가 크고 과두의 정확한 재건을 위하여 Nam's, method mandibular border ostectomy, LeFort 1 상악골절단술, 반대측에 Sagittal split osteotomy를 하여 턱교정수술을 한 예이다.



A.



B.

그림 1. 수술전후의 정면방사선 사진으로 수술후 occlusal canting의 해소와 균형적인 인모로 개선되었다.



그림 2.

수술전 좌측 과두에 발생한 Osteochondroma, 좌측하악 상행지의 과도한 성장과 Bowing을 관찰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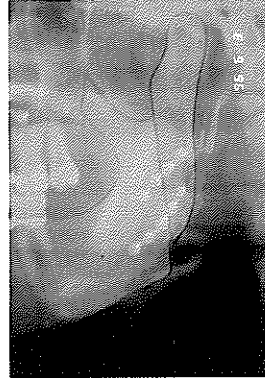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

수술직후의 방사선 사진으로, 과두절제, Nam's method를 이용한 상행지 수직골 절단술과 Bone plate에 의한 고정을 관찰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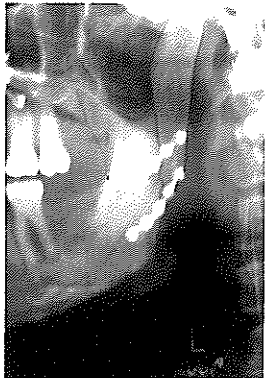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

수술후 1년후 방사선사진으로, 상행지 수직골 절단된 과두부위의 원심부에 골흡수를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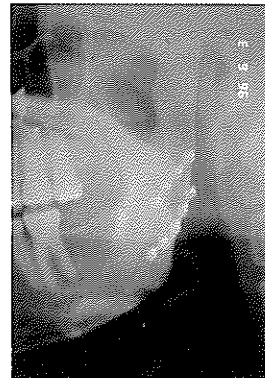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

수술후 5년후 방사선으로, 골흡수가 있었던 상행지부위에 골침착을 관찰할 수 있다.